



2021년 제54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요약)

평화의 길인 돌봄의 문화

제54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전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가 야기한 대규모 보건 위기로 얼룩진 한 해였습니다. 이는 기후, 식량, 경제, 이주 문제처럼 서로 밀접히 관련된 위기들을 더욱 악화시키고 큰 고통과 불안을 야기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류의 길을 얼룩지게 한 사건들은, 형제애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하려면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피조물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평화의 길인 돌봄의 문화’는 무관심과 버림과 대립의 문화에 맞서 싸우는 길이 됩니다.

성경의 창세기, 창조주께서 카인에게 찍어 주신 보호의 표, 안식일과 희년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서 돌봄이 지니는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목숨을 희생하는 선물을 통하여 당신의 돌봄을 증명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마태 9,9) 그리고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

첫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가운데에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너그러움이 처음의 열정을 잃어 가자, 교부들은 재산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는 하느님 뜻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회 본연의 섬김(디아코니아)은 교부들의 성찰로 풍성해지고, 신앙 증인들의 애덕을 통하여 더욱 활기를 띠면서 사회 교리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회 교리는 돌봄의 ‘원리’를 이끌어 낼